

이달의 어항 55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항

‘바다 안개 속 신비의 섬’ 외연도

달그락 달그락 몽돌소리에 ‘사랑나무’ 사랑은 깊어가고



외연도는 보령시에 속한 70여개의 섬들 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섬으로 주변의 오도·횡건도·수도·중청도·대청도·외횡건도 등의 자그마한 섬들을 호위하듯 거느리고 있어 외연열도라 부른다. 또한 외연도는 지척에 도달하기까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신비함에 싸여 있는데, 짙은 해무에 가려져 있다는 의미로 외연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백제 때는 신촌현에 속했고, 신라 때는 신읍현에 속했으며,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보령현에 속했다가 조선 말기에 오천군 하서면으로 편입되었다. 그뒤 1914년 횡건도리를 병합하면서 보령군 오천면 외연도리에 속하게 되었다.

면적 2.18km², 인구 500여명으로 동쪽 끝에 봉화산, 서쪽 끝에 망재산이 솟아 있고, 가운데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깊은 만과 큰 돌출부가 이어져 있으며, 북쪽 해안 곳곳에는 암석해안의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다. 1월 평균기온은 -2.2℃, 8월 평균기온은 26.2℃, 연강수량은 1,128mm이고,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다. 중국에서 오는 닭의 울음소리도

들린다는 황해 한북판에 자리한 섬으로, 푸른 바다와 상록수림이 조화를 이루어 여름철 피서지로 알려져 있다.

유적으로 중국 제나라가 망할 때 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정착했다는 전횡(田橫)의 사당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매년 전횡 장군을 추모하며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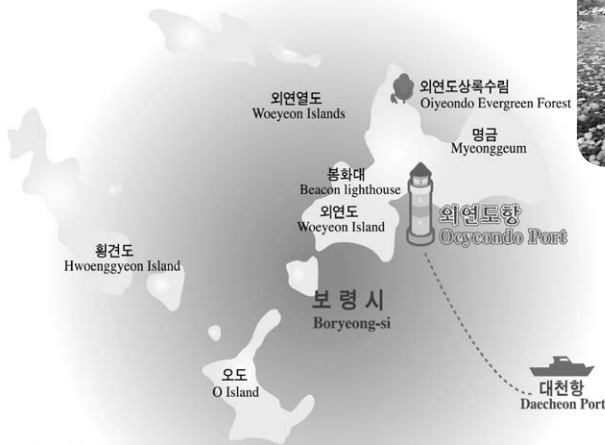
마을사람들은 요즘도 음력 정월대보름 자정에 살아 있는 소를 제물삼아 제를 올린다. 9번 종을 치고 동시에 소를 잡는데, 제사가 끝난 후 땅에 닿은 부분은 마을사람들이 먹고, 땅에 닿지 않은

로 지정된 외연도 상록수림은 면적 3만 2,727m²이며 보령시에서 소유·관리한다. 이 숲은 외연도 마을 뒷산 능선 위에 있는 당림(堂林)으로서 중앙에 서낭당이 있어 주변의 숲이 잘 보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후박나무·동백나무 등의 상록수종이 우거져 높이 20m에 달한다. 이 숲의 주변에는 큰 나무가 없으므로 이 상록수림이 유일하게 과거에 자라던 이곳 숲의 유물적인 표본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는 나무높이 20m, 가슴높이 줄기둘레 1.4m에 달하는 탱나무의 거목도 있다.

이곳의 동백나무는 수백년 전에 섬사람들이 남쪽으로 왕래할 때 옮겨 심은 것이라고도 하며, 중국 제(齊)나라 장군으로 한(漢)나라에 쫓겨 병사들을 이끌고 이곳에 피신

해 있다가 항복을 강요받자 병사들과 섬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홀로 중국으로 건너가 자결하였다는 전횡장군이 심은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가지각색의 바닷물로 이루어진 외연도 몽돌 해변은 모래밭과는 다른 포금함을 느끼게 하며, 각각 다른 뿌리에서 자란 두 그루의 동백나무가 공중에서 하나의 가지로 만나 연결되어 있는 외연도 사랑나무도 꼭 보아야 할 명소이다.



부분은 전횡 장군에게 바친다. 사당 뒤편엔 제물로 바쳐졌던 우공(牛公)들의 뼈가 수북이 쌓여 있다.

이 밖에도 BC 3, 4세기경에 육지에서 이주해온 신석기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조개무지가 발굴되었다. 섬 중앙에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숲을 이룬 외연도의 상록수림이 있다.

♣ 주변관광지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136호

♣ 먹거리

외연도 먹거리는 당연 해산물이다. 봄철에는 간재미가 유명한데 간재미는 야채와 곁들여서 회무침으로 먹거나 회를 쳐서 초장에 찍어먹는 것으로 요즘은 우럭, 농어가 많이 나는 철이다.

♣ 찾아오는 길

경부 고속도로 천안 IC → 21번 국도 → 대천 → 대천 해수욕장 → 대천항 → 외연도